

Grand European Tour -Viking cruise



DAY1 부다페스트, 헝가리

여객선에 승선하여 객실에 여유롭게 자리 잡으세요.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활기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헝가리의 매혹적인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도나우 강을 사이에 두고 전통적인 언덕 지대인 부다와 현대적인 도시 중심인 페스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 견고한 성, 웅장한 궁전들이 산책과 온천욕을 더욱 특별하게 해줍니다. 밤이 되면 국회의사당의 불빛이 도나우 강 위로 반짝이며 춤을 추고,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체인 브리지가 극적인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DAY2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구시가지는 좁은 골목과 다채로운 색상의 집들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중세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캐슬 지구(Castle District)에는 고딕 양식의 위엄을 자랑하는 마차시 교회(Matthias Church)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어부의 요새(Fisherman's Bastion)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일곱 개의 탑과 성벽은 도나우 강, 우아한 체인 브리지, 그리고 강 건너편의 페스트 지역을 내려다봅니다.

이 지구의 중심에는 웅장한 부다 성(Buda Castle)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3 세기에 처음 건설된 이 성은 18 세기에 바로크 양식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으며, 약 700 년 동안 헝가리 왕들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DAY3 비엔나, 오스트리아

“왈츠의 도시”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유럽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와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들을 작곡했습니다. 비엔나의 음악적 유산은 링슈트라세(Ringstrasse)를 따라 이어지는 우아하고 정교한 건축물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 너비 넓은 대로는 도심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호프부르크 궁전(Hofburg Palace)에서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Vienna State Opera)에 이르기까지 바로크, 신고전주의, 고딕-로마네스크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웅장한 외관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비엔나에는 더 아늑하고 정겨운 면도 있습니다. 초록빛 공원을 가로지르는 산책길은 방문객을 초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나 카페에서는 커피와 달콤한 자허토르테(Sachertorte)가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DAY4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 중심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훌륭한 미술품들이 현재 쿤스트히스토리셰스 미술관(Kunsthistorisches Museum)에 소장되어 있으며, 오랜 예술 전통을 자랑합니다. 오늘날에는 도나우 강변 건물 벽면을 장식한 거리 예술 벽화들을 통해 현대적인 비엔나의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커피하우스 문화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페너(Einspänner)’ 커피 한 잔과 맛있는 페이스트리와 함께 오후의 여유를 보내는 것은 비엔나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DAY5

전경 감상 항해: 바하우 계곡 (Wachau Valley)

오스트리아 바하우 계곡은 도나우 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손꼽히며, 계단식 포도밭과 숲이 우거진 언덕, 아기자기한 마을, 성터들이 어우러진 고요한 풍경 속을 항해하게 됩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따라 18 마일(약 29km)을 항해하면서 그림 같은 언덕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가를 따라 이어지는 풍요로운 포도밭과 와인을 생산하는 소박한 마을들은 켈트족과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포도 재배의 전통을 보여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30 개 이상의 수도원이 포도원을 운영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멜크, 오스트리아 (Melk)

그림 같은 마을들과 동화 속 성들로 둘러싸인 오스트리아의 주요 와인 산지에 위치한 멜크는 바하우 계곡의 시작점에 자리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마을 언덕 위에 우뚝 솟은 900 년 된 베네딕도회 수도원은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그 장엄함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 건축물에는 1 년 365 일을 상징하는 365 개의 창문이 있으며, 넓은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아름다운 수도원 도서관에는 귀중한 중세 필사본들과 파울 트로거(Paul Troger)의 멋진 프레스코화가 보관되어 있으며, 정원 또한 잘 정비되어 있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DAY6 파사우, 독일 (Passau, Germany)

켈트족에 의해 2,000 년 이상 전에 건설된 파사우는 바이에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세 강의 도시(City of Three Rivers)’로 불리며, 인강(Inn), 일츠강(Ilz), 그리고 도나우강(Danube)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 덕분에 파사우는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번영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아한 아케이드, 로코코 양식의 다채로운 외관을 지닌 주택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 중 하나를 보유한 장엄한 바로크 양식의 성 슈테판 대성당(St. Stephen’s Cathedral)이 그 예입니다. 또한 파사우는 두 나라가 만나는 곳으로, 바로 이곳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이 시작됩니다.

DAY7 레겐스부르크, 독일 (Regensburg, Germany)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덕분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 레겐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도시 중 하나로, 도나우 강을 따라 위치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2 세기에 건설된 구시가지의 구석돌다리(Old Stone Bridge)는 16 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중세 공학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또한 성 페터 대성당(St. Peter’s Cathedral)은 바이에른 지역 최고의 고딕 건축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노이프파어플라츠 광장(Neupfarrplatz)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로, 한때 번창했던 유대인 지구이자 활기 넘치던 시장이었으며, 나치 정권 시절에는 책 소각이 벌어졌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DAY8

전경 감상 항해: 마인-도나우 운하, 독일 (Scenic Sailing: Main-Danube Canal, Germany)

약 1,200 년 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는 라인강, 마인강, 도나우강을 연결해 유럽 전역을 선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로를 구상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꿈은 인상적인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마인-도나우 운하는 계단식 구조의 16 개 수문을 활용하여 선박이 네덜란드의 북해 연안에서 루마니아의 흑해 해안까지, 10 개국을 가로지르며 총 3,500km(약 2,200 마일)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뉘른베르크, 독일 (Nuremberg, Germany)

바이에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뉘른베르크는 전통적인 목조 건물들과 정교한 첨탑이 있는 고딕 양식 교회들로 가득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거의 전면 파괴되었지만, 약 5km 에 달하는 중세 성벽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원래의 성문과 80 개의 감시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예로부터 금속 공예와 장난감 제작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제 2 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어두운 역사로 기억됩니다. 나치의 집회 장소였던 체펠린 필드(Zeppelin Field)와, 전범 재판이 열린 정의의 궁전(Palace of Justice)은 한 세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역사적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DAY9 밤베르크, 독일 (Bamberg, Germany)

902 년에 건립된 밤베르크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특산 훈제 맥주인 라우흐비어(Rauchbier)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의 구불구불한 거리에는 바로크 양식의 귀족 저택들이 줄지어 있으며,

11 세기에 세워진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2 세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인리히 2 세와 교황 클레멘스 2 세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밤베르크에서 특히 유명한 건축물은 레그니츠강(Regnitz River)을 가로지르는 쌍둥이 아치 다리 위에 지어진 구 시청사(Altes Rathaus)입니다. 또한, 주교의 옛 관저였던 16 세기의 알테 호프할통(Alte Hofhaltung, 구 궁정)과 17 세기의 노이에 레지덴츠(Neue Residenz, 신 관저)도 주요 명소에 손꼽힙니다.

DAY10 뷔르츠부르크, 독일 (Würzburg, Germany)

프랑코니아의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뷔르츠부르크는 제 2 차 세계대전 중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이 명망 높은 대학 도시는 바로크 건축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뛰어난 예는 1744 년에 왕자-주교를 위해 지어진 웅장한 주교의 레지덴츠 궁전(Bishops' Residenz)입니다. 이 궁전은 예술가들에 대한 왕자-주교의 변함없는 지원을 증명하는 것으로, 웅장한 계단과 티에폴로(Tiepolo)의 멋진 천장 프레스코화가 그 예입니다.

그 외에도 중세의 조각들이 늘어선 구 메인 다리(Old Main Bridge)와 마리에네베르크 성(Marienberg Fortress)이 유명합니다. 마리에네베르크 성은 원래 켈트족의 언덕 성으로 시작하여, 후에 주교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포도밭을 자랑하는 와인 생산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DAY11

베르트하임, 독일 (Wertheim, Germany)

마인강(Main)과 타우버강(Tauber)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베르트하임은 역사로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12 세기에 베르트하임 공작들은 이 전략적인 위치에 성을 지었습니다. 성은 30 년 전쟁 중에 함락되어 파괴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상적이며, 중세 도시 중심과 반목조 집들을 내려다보는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의 뾰족탑(Pointed Tower)은 800 년 동안 마인강과 타우버강이 만나는 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상업 도시로 유명했던 베르트하임은 현재 프랑코니아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경 감상 항해: 마인강, 슈페사르 (Scenic Sailing: Main River, Spessart)

오늘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하나인 마인강을 따라 항해하며, 독일의 아름다운 풍경과 동화 같은 매력을 간직한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강가 마을, 기복이 있는 농촌 풍경, 그리고 슈페사르 숲의 울창한 숲을 지나게 됩니다. 항해하는 동안, 반목조 집, 역사적인 성, 웅장한 궁전들이 그려낸 꿈같은 풍경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공작들이 다스렸던 독일로, 형제 그리무(Grimm Brothers)가 자라면서 그들이 살았던 이 지역에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엮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DAY12 전경 감상 항해: 미들 라인 (Scenic Sailing: Middle Rhine)

라인강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를 흐릅니다. 그중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들 라인(Middle Rhine) 구간은 가장 그림 같은 항해 구간으로 꼽힙니다. 포도밭으로 뒤덮인 가파른 언덕을 지나게 되는데, 이 지역의 포도 수확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손으로 이루어지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와인 생산 문화가 살아 숨 쉰니다. 강 양쪽에는 장대한 성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각각 고유한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이 크게 굽이치는 지점에 위치한 로렐라이 바위(Lorelei Rock)는 전설 속 강의 여인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파멸로 이끌었다는 신화로 유명합니다.

코블렌츠, 독일 (Koblenz, Germany)

코블렌츠는 2,0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독일 도시로, 미들 라인 고원의 암반 위에 세워진 오래된 무역 정착지입니다. 자갈길, 꽃으로 장식된 목조 건물, 고풍스러운 시장 광장, 그리고 중세 교회들이 동화 속 독일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독일의 모퉁이(Deutsches Eck)'라 불리는 지점에는 독일 황제 빌헬름 1 세의 거대한 기마상이 우뚝 서서 강가의 아름다운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1216 년에는 유명한 튜튼 기사단(Teutonic Knights)이 이곳에 첫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카스토르 대성당(Basilica of St. Castor)은 836 년에 세워졌습니다.

DAY13 쾰른, 독일 (Cologne, Germany)

쾰른은 도시 구조와 곳곳에 흩어진 고대 유적을 통해 로마 시대의 유산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현대적인 광장과 호헤 슈트라스에(Hohe Strasse) 거리에는 다양한 상점과 매력적인 레스토랑, 그리고 향수 전문 부티크들이 즐비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명소는 13 세기에 세워진 쾰른 대성당(Cologne Cathedral)으로, 고딕 예술의 걸작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폭격을 견뎌낸 이 성당은 두 개의 웅장한 첨탑으로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내부의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창은 빛을 받아 찬란한 색채로 공간을 채웁니다.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펼쳐집니다.

DAY14

전경 감상 항해: 바알강 & 메르베데강 (Scenic Sailing: Waal & Merwede)

라인강의 목가적인 물길을 따라 항해하며 라인-무즈-스헬데(Rhine-Meuse-Scheldt) 델타 깊숙이 들어서면, 전형적인 네덜란드의 풍경이 사방에 펼쳐집니다. 평평한 농지, 매력적인 풍차, 날씬하게 뺀 포플러 나무들이 강가를 따라 늘어서 있고, 사방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지에는 토마토부터 튜립까지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프리슬란드 소들이 풀을 뜯고, 깔끔하게 정돈된 농가들과 단정한 마을들이 이어지는 풍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땅 대부분은 바다로부터 간척되어 전통 풍차와 제방 공사로 이루어진 인간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킨더다이크, 네덜란드 (Kinderdijk, The Netherlands)

킨더다이크는 알블라서르바르트(Alblasserwaard) 지역에 위치한 마을 공동체로, 아름다운 바알강과 메르베데강 지역에 속하는 남부 홀란드 지방의 일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라인강 델타의 물길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킨더다이크는 특히 잘 보존된 18 세기 풍차 19 기로 유명합니다. 이 매력적인 마을은 해수면보다 낮은 간척지(polder)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으며, 풍차의 힘으로 바다에서 간척해낸 땅들이 제방(dike)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장소는 1865 년 소설 『한스 브링커(Hans Brinker)』를 떠오르게 하는데, 이 이야기 속 소년은 구멍 난 제방에 손가락을 틀어막아 마을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DAY15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Amsterdam, The Netherlands)

동행했던 승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귀국 여정을 시작하세요. 또는 시간을 조금 더 내어 암스테르담을 탐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이킹의 연장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